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김종운, 김지현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Jong-Un Kim(jongun21@hanmail.net), Ji-Hyun Kim(skileo@nate.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교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 모 애착,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 애착과 친구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학교와 학과, 대학 상담센터에서의 다양한 정책적인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친구지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부모애착 | 사회적 지지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about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were collected from 386 university students. Results of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we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finding shows that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h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both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respectively. Second,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f friends have more influ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especially in academic, social, personal-emotional and environmental one. Thu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a wide variety of policy research, continuous counseling, and development of programs for a bett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 **keyword** : | Parental Attachment | Social Support | Adjustment to College Life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08월 19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10일

교신저자 : 김지현, e-mail : skileo@nate.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이며 계속적인 적응이 요구된다. 발달 단계별로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에 나아갈 준비 및 미래의 인생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것은 그 후 일생을 통해 그의 적응체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환경과 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부모나 학교에 의해 주어진 환경에서 순응하며 지내다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부담에서 해방되면서 많은 시간과 자유를 얻게 된다.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 바 없으나 사회적·심리적인 면들이 아직 미성숙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여 다양한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대학생활에 전반적인 애착,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부적응 대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업적 수행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방치될 경우 악순환 되어 만성화될 소지가 높다[3].

한국교육개발원(2012)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3명은 휴학 상태에 있고,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핵심 취업연령층(25~29세)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지만 휴학률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불황과 취업난향으로 인한 휴학도 있겠지만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30~40%의 학생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고, 매 학기 20%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

부진으로 인한 학사제적, 자퇴, 미등록, 자살, 사망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4].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5]. 대학생활적응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 수준이 곧 적응 여부로 이해되어졌으나[6], 학업적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활적응을 다룰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과 관련이 있는데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에 관한 이 변인들은 안정된 애착에서 비롯된다[7]. 애착(attachment)이란 Bowlby(1980)가 유아와 양육자간의 사이에 형성된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애착의 형성은 생후 1년 이내를 특정대상과 서로 밀접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유대관계를 기초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을 거쳐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전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은 Bowlby의 이론 중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된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아동이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본질, 성격, 행동에 대하여 형성하는 개념으로, 자신과 애착 대상자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정된 부모애착은 많은 변화와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 잘 적응하게 하고,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이 높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수줍음도 덜 타게 한다[8].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내외적인 자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데 이 때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로 인한 좌절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9].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0]. 또한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며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적응을 잘한다고 평가하게 만들고[11], 대학생들의 성숙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2]. 즉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더욱 강조되고[2],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부모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해진다는 연구결과[13]를 통해서 대학생 생활적응에서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기성장주도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 대학생의 개인적 측면에 관한 연구[14-17]가 활발한 편이다. 그밖에 대학생시기의 후회, 스트레스나 부적응도식, 의존부정성향 등의 부정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14][18][19-21]와 감사성향, 신앙성숙도, 성격장점, 재미와 몰입, 주관적 안녕 등 긍정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22-24]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진로 관련 연구[25][26]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환경적인 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내적 변인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무엇보다 발달적 시기를 고려할 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에 나아갈 준비 및 미래의 인생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대학생활적응 요인으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던 환경적인 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외부환경변인 중 부, 모 애착 각각과 사회적 지지에서도 부지지, 모지지, 친구지지 각각을 동시에 투입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고,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의 해결방안 및 예방적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환경 변인인 부모애착과 사회

환경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은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부 애착, 모 애착, 부 사회적 지지, 모 사회적 지지, 친구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에 상관이 있는가?
- 2) 대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부 사회적 지지, 모 사회적 지지, 친구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2012년 5월 14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제 응답 자료를 제외한 38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386)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6	30.1	
	여	270	69.9	
학년	1	68	17.6	
	2	102	26.4	
	3	140	36.3	
	4	76	19.7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56	14.5	
	200~400만원	179	46.4	
	400~600만원	108	28.0	
	600만원이상	43	11.1	
	중졸	29	7.5	
	아버지 학력	고졸	203	52.6
전문대졸		23	6.0	
대졸이상		131	33.9	
	중졸	36	9.3	
	어머니 학력	고졸	234	60.6
		전문대졸	21	5.4
	대졸이상	95	24.7	

2. 측정도구

2.1 부모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27]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PPA-R에서 또래 안정성을 제외하고 부, 모 애착안정성만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등 세 개의 하위척도로 분류하였고 총 25문항이다. 첫째,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때 나의 기분을 알아차려서 이야기 하도록 격려하고,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담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9 문항), 둘째, 문제를 상의했을 때 수치스러움이나 후회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관심을 받지 못한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를 받지 못하여 분노감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소외감(6문항), 셋째,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 의견을 고려하고 판단을 신뢰하며,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신뢰감(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한다.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뜻하며 소외감 요인인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애착 수준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부 애착 .94, 모 애착 .93이었다.

2.2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년)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여 재번안한 것[2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개의 하위척도로 분류하였고 총 25문항이다. 첫째, 사랑, 친밀감, 관심과 염려, 신뢰, 용기, 이해,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7문항), 둘째,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존중,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이해하는 정보적 지지(6문항), 셋째, 필요로 할 때 직접, 간접적인 도움,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 때, 시간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물질적 지지(6문항), 넷째, 공정한 평가, 가치로움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 아낌없는 칭찬, 인격적인 존중을 해 주는 평가적 지지(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부 사회적 지지 .98, 모 사회적 지지 .97, 친구의 사회적 지지 .96이었다.

2.3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것을 현진원(1992)이 번안하고 박병혁(2006)이 재번안한 [29]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대학환경적응 등 네 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하였고, 첫째,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응(24문항),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16문항),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응(16문항), 대학에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 대학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의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환경적응(11문항)으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9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까지 Likert 척도이다. 적응점수는 문항에 따라 그대로 혹은 역산하도록 하는데 네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학업적응 .86, 사회적응 .87, 개인-정서적응 .84, 대학환경적응 .83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

되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부, 모 애착,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N=386)

변인	하위변인	M	SD
부 애착	의사소통	028.41	06.97
	소외감	022.91	04.53
	신뢰감	037.55	07.20
모 애착	의사소통	030.25	06.32
	소외감	023.53	03.88
	신뢰감	039.00	06.16
부 사회적 지지	정서지지	027.01	06.29
	정보지지	023.18	05.37
	물질지지	023.18	05.08
	평가지지	023.58	04.91
모 사회적 지지	정서지지	028.59	05.20
	정보지지	024.08	04.54
	물질지지	024.22	04.23
	평가지지	024.55	04.13
친구 사회적 지지	정서지지	028.29	04.48
	정보지지	023.19	03.98
	물질지지	022.87	03.84
	평가지지	024.03	03.46
대학 생활 적응	학업적응	125.64	23.96
	사회적응	094.72	19.58
	개인-정서적응	083.32	18.78
	대학환경적응	081.85	16.56

2. 부, 모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부 애착, 모 애착 모두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사회적응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부 애착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부 애착 소외감과 개인-정서적응이고, 모 애착에서는 모 애착 소외감과 학업적응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부 사회적 지지와 모 사회적지지, 친구 사회적 지지 모두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표 3.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각 하위변인 간의 상관계수

변인	하위변인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부 애착	의사소통	.34**	.39**	.25**	.32**
	소외감	.40**	.40**	.41**	.37**
	신뢰감	.35**	.37**	.27**	.34**
모 애착	의사소통	.25**	.31**	.13**	.27**
	소외감	.34**	.33**	.32**	.33**
	신뢰감	.31**	.33**	.21**	.32**
부 사회적 지지	부 정서지지	.34**	.42**	.32**	.35**
	부 정보지지	.32**	.41**	.29**	.36**
	부 물질지지	.30**	.35**	.29**	.32**
	부 평가지지	.37**	.42**	.31**	.39**
모 사회적 지지	모 정서지지	.29**	.34**	.24**	.32**
	모 정보지지	.29**	.35**	.22**	.32**
	모 물질지지	.25**	.29**	.20**	.27**
	모 평가지지	.30**	.34**	.23**	.32**
친구 사회적 지지	친구 정서지지	.31**	.46**	.25**	.40**
	친구 정보지지	.30**	.47**	.21**	.42**
	친구 물질지지	.31**	.44**	.21**	.38**
	친구 평가지지	.34**	.47**	.25**	.42**

** $p < .01$

3. 부, 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1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학업적응에는 부 애착 중 소외감 ($F=74.464, p<.001$), 친구 사회적 지지 중 평가지지 ($F=49.728,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 애착 소외감이 16.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친구 평가지지가 4.4% 첨가됨으로써 전체 20.6%의 설명력을 진다. 그러나 모 애착과 부 사회적 지지, 모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 애착 소외감과 친구 평가지이며 그 중 부 애착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적응,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B	β	t	F	R ²	ΔR ²
(상수)	76.775					
부애착 소외감	02.133	.403	8.629***	74.464***	.162	
(상수)	49.393					
부애착 소외감	01.692	.320	6.522***			
친구 평가지	01.560	.225	4.593***	49.728***	.206	.044

*** $p < .001$

3.2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응,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B	β	t	F	R ²	ΔR ²
(상수)	41.028					
친구 정보지지	02.315	.471	10.468***	109.589***	.222	
(상수)	25.706					
친구 정보지지	01.842	.375	08.077***			
부 애착 소외감	01.148	.265	05.715***	075.645***	.283	.061
(상수)	17.980					
친구 정보지지	01.075	.219	02.959**0			
부 애착 소외감	01.072	.248	05.329***			
친구 평가지	01.135	.200	02.701**0	53.691***	.297	.013

** $p < .01$, *** $p < .001$

[표 5]에 따르면, 사회적응에는 친구 사회적 지지 중 정보지지($F=109.589, p < .001$), 부, 모 애착 중 부 애착 소외감($F=75.645, p < .001$), 친구 사회적 지지 중 평가지

지($F=53.691,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구 정보지지가 22.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부 애착 소외감이 6.1% 첨가됨으로써 전체 28.3%의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친구 평가지지가 1.3% 첨가됨으로써 전체 29.6%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 정보지지, 부 애착 소외감, 친구 평가지지의 순으로 친구 정보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정서적응,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의 중다회귀 분석

모형	B	β	t	F	R ²	ΔR ²
(상수)	44.360					
부 애착 소외감	01.701	0.410	08.809***	77.601***	.168	
(상수)	34.857					
부 애착 소외감	01.529	0.369	07.408***			
친구 정서지지	00.475	0.113	02.277*00	41.816***	.179	.011
(상수)	37.560					
부 애착 소외감	01.737	0.419	07.798***			
친구 정서지지	00.630	0.150	02.899**0			
모 애착 의사소통	0-.392	-.132	-2.396*00	30.137***	.191	.012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 따르면, 개인-정서적응에는 부 애착 중 소외감은($F=77.601, p < .001$), 친구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정서지지($F=41.816, p < .001$), 모 애착 중 의사소통($F=30.137,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 애착 소외감이 16.8%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친구 정서지지가 1.1% 첨가됨으로써 17.9%의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모 애착 의사소통이 1.2%첨가됨으로써 전체 19.1%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 애

착 소외감, 친구 정서지지, 모 애착 의사소통 순으로 부 애착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 모 사회적 지지는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3.4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중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대학환경적응,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β	β	t	F	R^2	ΔR^2
(상수)	041.772					
친구 정보지지	001.728	.416	8.960***	80.282***	.173	
(상수)	146.974					
친구 정보지지	029.347	.324	5.895***			
(상수)	001.345		6.721***			
부 애착 소외감	000.931	.254	5.283***	56.911***	.229	.056
(상수)	023.685					
친구 정보지지	000.782	.188	2.449***			
부 애착 소외감	000.875	.239	4.945***			
친구 평가지지	000.831	.174	2.250***	40.031***	.239	.010

* α .05, *** α .001

[표 7]에 따르면, 대학만족도에는 친구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정보지지($F=80.282, p<.001$), 부 애착 소외감($F=56.911, p<.001$), 친구 평가지지($F=40.031,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구 정보지지가 17.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부 애착 소외감이 5.6% 첨가됨으로써 22.9%의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친구 평가지지가 1% 첨가됨으로써 전체 23.9%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 애착과 부, 모 사회적 지지는 대학환경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대학환경적응에는 부, 모 애착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친구 정보지지와 친구 평가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 모 애착,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모두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부 애착은 대학생활적응 하위변인 중 사회적 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 애착은 대학생활적응과 상관은 있지만 부 애착 보다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애착이 모 애착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8][30-32]와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구[33]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 모 애착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둘째, 부, 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소 간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모 애착 하위변인 중 부 애착 소외감과 친구 사회적 지지 중 친구 평가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 소외감이 낮을수록 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34][35]와 일치하지만, 부모 지지와 교수 지지는 높을수록 상관이 있고 친구 지지는 상관이 없다는 [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 애착 소외감이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소외감이 적을수록 학업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부진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 원인을 수업변인과 학습자 변인으로 살펴 본 결과 학습자 변인 중 부모의 무관심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36]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친구 평가지만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8][14][37]

를 지지하며, 학교생활적응 연구[38][39]와 일맥상통한다.

학업적응에는 대학 학업 수행 능력과 학업적 목적 및 목표의 결정여부, 학과와 학업 성적 수준 만족도,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의 질과 출석률, 수강과목과 교수님 만족도, 해당 과목의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학업상태가 포함된다.

대학생활의 성패를 가능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학점인데 학교 또는 학과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출석률과 주의집중문제, 의욕저하로 인한 학업적응의 어려움이나 발표수업과 보고서 작성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밖에도 교수님과 다양해진 인간관계와 자기조절 간에 불균형으로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원천이 되는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학과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학사경고등 학업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과 학과 내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업부적응 문제가 친구와 교수님과의 관계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볼 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상담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적인 면보다 오히려 소외감 측면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아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소원을 다루어서 정신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학업적 적응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친구의 평가적 지지를 선배나 동기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전공에 관한 흥미와 학업적 목적과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학습부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서로 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 정보지지, 부 애착 소외감, 친구 평가지지로 나타났으나, 부, 모 애착의 다른 변인과 부, 모의 사회적 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대학생활에서는 공부와 취업준비 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 동아리활동, 소비활동, 성관계, 음주문화, 자취문화 등 다양한 자유가 주어지는데[4], 자기조절의 어려움과 미숙함으로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심각한 부적응

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부 소외감이 적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적응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지지보다는 친구의 정보지지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데 더 존중할 만하고 현실에 적응하는데 더 적절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와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코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갑자기 주어진 독립과 자율성, 대학생활 이해 부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 적응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학생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 애착 소외감, 친구 정서지지, 모 애착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을 하면서 사회적, 학업적, 대학환경적인 면 등 다양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되고 예민해져서 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청소년기와 달리 대학에서 드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생기는 격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부 애착 소외감과 모 애착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한 [40]의 연구와 같이 친구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 모 애착 정도가 높은 경우의 청소년일수록 신체화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41]논문과 같이 대학생 시기에도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대학생활적응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도 부와 의논을 하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관심과 이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부터 이해와 관심 받지 못하여 생기는 분노의 감정은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부터 소외감이 적을수록 건강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와의 의사소통이 개인-정서적응에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 정서지지가 중요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애착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개별화되었는지를 성숙의 지표로 삼는데 반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심정적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즉,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관계주의적 성숙으로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씨주기를 깨닫고 감동하여 반응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42]. 서두르기 보다는 이해와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 정서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심리적 독립의 과정을 이해하고 지지, 격려할 때 정서적 적응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개인-정서지지 자원이 적은 학생을 위해서는 상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43].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감정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 중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 정보지지와 부 애착 소외감, 친구 평가지지도이다.

대학환경적응에는 대학에서 유대정도와 입학 만족도, 학교만족도,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희망감, 생활 만족도, 같은 과 친구와 그밖에 대인관계 적응 만족도, 대학 강의의 수와 종류 등 대학의 질, 학위성취 욕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 대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휴학, 중도포기, 전과 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친구의 정보와 평가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생활에 관심과 이해가 있을 때 학생의 대학에 대한 애착과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올라가고 그로인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만족도와 희망감,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 대학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도 조사 등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관심을 이끌

어 내는 교육프로그램 및 자녀들이 건강한 아버지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휴학이나 중도포기, 전과 등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칭 및 또래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적응 학생들의 환경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 모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을 보면 부, 모 애착 변인에서는 부 애착 소외감과 모 애착 의사소통만이 그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죄책감, 불신, 분노 등에서 자유로울수록 정서적 조절능력이 커져서 자기 존중감의 상황적 위협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44]. 부 애착 소외감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만큼 부와의 정서적 거리가 좁혀지고 관계가 개선될 때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인-정서적응에서는 모 애착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안정된 부, 모 애착이 중요한 만큼 대학생이 되면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습득하며 인정이나 도움, 관심 등 사회적인 신념도 중시하게 된다.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부분과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술을 지원하고 사회적 적응의 준비단계인 대학에서의 사회적응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성패를 가능하는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 그리고 대학환경적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재형성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친구지지 자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년별 표집의 수가 고르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부모

지지, 친구 지지 이외에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사회적 지지 변인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후 사회적 지지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박미정, 함영립,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27-337, 2012.

[2] 김지현, 도현심, 신나나, 김민정, “어머니의 자녀 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4호, pp.217-232, 2011.

[3] 서수균, 김계현 “대학생활적응도 테스트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제36권, 제1호, pp.1-12, 2002.

[4] 권석만, *인생의 2막 대학생활*, 서울 학지사, 2010.

[5] 조수진,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경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H. Gerdes and B. Mallinckrodt,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2, No.3, p.281, 1994.

[7] 이내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김소라,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10] 박지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정서, 자아강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5권, 제1호, pp.1-16, 2011.

[11] G. R. Pierce, I. G. Sarason, and B. R. Sarason, “General and relationship-base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re two constructs better than o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1028-1039, 1991.

[12] 김지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 이지연, 위광희,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발달적 연구”, *교육심리연구지*, 제14권, 제2호, pp.5-28, 2000.

[14] 김영린, 이기학,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제13권, 제5호, pp.2251-2270, 2012.

[15] 김휘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17] 이사라,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성인기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제4호, pp.1-10, 2012.

[18] 김진희,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건강증진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9] 김현진, *애착유형, 초기부적응도식, 대학생활적응과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0] 고민석, 정지나, “보건계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

- 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6권, 제4호, pp.131-142, 2012.
- [21] 권은경, “전문대생의 심리적특성, 직업가치, 대학 생활적응간의 영향관계”,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6호, pp.171-179, 2012.
- [22] 정은이, “재미와 몰입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지, 제44권, pp.71-99, 2012.
- [23] 정은이, “대학생 시기의 후회와 주관적 안녕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305-330, 2013.
- [24] 최운영,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기독교 영성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7권, 제3호, pp.293-317, 2012.
- [25] 신연주, *전문계 출신 대학 진학자들이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6] 장광원,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7] 옥정,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8] 김연수,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9] 박범혁,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30] 윤서영, 정옥분,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01-123, 1999.
- [31] 장원동, *부모교육*, 서울 상조사, 2000.
- [32] K. G. Rice, T. J. Cunningham, and M. B. Young,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4, No.1, pp.89-101, 1997.
- [33] 이경립, 박재국,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 한국특수아동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289-308, 2007.
- [34] 조화진,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5]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133-144, 2010.
- [36] 박철우, *자아개념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7] 장연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8] 강창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9]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40] 유혜경,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발달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1] 이상희, *부모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양가성, 정서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2] 박영호,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3] 김근면, 차선경,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22-332, 2013.

[44] 허지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관계적 자기인식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저 자 소 개

김 중 윤(Jong-U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상담심리) 박사
- 2005년 ~ 2006년 : 인디애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방문교수
- 2009년 ~ 2012년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200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상담, 학교상담, 아동청소년 상담심리

김 지 현(Ji-Hyu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일본학(문학사) 학사
- 2008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석사
- 2013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박사수료

▪ 2009년 3월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 2012년 4월 ~ 현재 : 부산고등학교 전문상담사
<관심분야> : 가족, 정서, 의사소통, 교육